

美 정치권 '러시아 스캔들' 2라운드 대결

특검수사보고서 '편집본' 공개 앞두고 전운 고조 민주당, 축소·왜곡 논란 '보고서' 전면 공개 요구

미국 로버트 뮐러 특검팀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결과 보고서에 대한 '편집본' 공개를 앞두고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이 보고서 전면 공개를 요구하며 총공세를 펴는 가운데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지난달 24일(현지시간) 의회에 제출한 4쪽짜리 요약본이 실제 수사결과를 제대로 담지 않았다는 특검팀 내부 인사들의 '증언'들로 인해 수사결과 축소·왜곡 논란이 확산하면서 특검 보고서를 둘러싼 정치권 내 '전투'가 2라운드를 맞는 양상이다. 공개수위를 둘러싸고 법무부와 민주당의 지루한 싸움이 예고된다.

워싱턴포스트(WP)는 7일 "특검 수사 결과 보고서를 둘러싸고 고조되고 있는 '정치적 전투'가 보고서에 대한 '법적인 편집·삭제 절차'로 그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며 "이러한 편집 과정에 노여워하고 그 결과를 불신하는 민주당이 지난 22개월간에 걸친 특검 수사의 모든 증거와 결론을 보고 싶어 하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바 법무장관은 이번 사건의 양대 축인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 측 간 공모의혹과 사법 방해 의혹과 관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실상 '정치적 면죄부'를 준 요약본 제출 이후 전체 보고서 공개 여론이 확산하자 특검보고서의 일부 민감한 내용을 지운 일반인 공개본을 이달 중순까지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통보한 상황이다.

바 법무장관이 의회에 통보한 편집 대상 4개 분야는 ▲대배심 심리 관련 문건 및 증언 내용 ▲정부의 정보 수집 방법 및 출처를 노출할 소지가 있는 정보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방해될 소지가 있는 정보 ▲지엽적 인사들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세부사항 등이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기밀'에 부칠지에 대해서는 바 장관이 전면적 재량권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이달 중순 일반인 공개본 발표를 통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다 하더라도 수개월간의 의회와 법무부 간 격돌을 거쳐 결국 법정 싸움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WP는 내다봤다.

당장 바 장관은 오는 9~10일 연달아 예정된 하원과 상원의 청문회에 출석, 특검 보고서 공개 문제를 둘러싸고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호된 추궁'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 청문회는 명목상으로는 법무부 예산과 관련된 것이지만 요약본의 편파성 시비와 함께 현재 진행 중인 특검보고서 편집 작업에 대한 파상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의원들은 특히 바 장관의 답변에

서 트럼프 대통령을 비호한다는 빌미가 될 수 있는 게 없는지 '현미경 검증'에 나서겠다고 버르고 있다.

반(反) 트럼프 진영에서는 바 장관이 지난달 24일 공개된 요약본을 통해 실제 특검 수사결과를 '몰타기' 했다는 의심 어린 눈길을 보내고 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골칫거리'가 될 수 있는 내용이 요약본에는 빠져 있다는 특검팀의 증언을 소개한 언론 보도들이 최근 나오면서 요약본에 대한 수사결과 축소·왜곡 논란에 기름을 부은 양상이다.

이런 가운데 미국 대통령은 특검 수사보고서를 제출받아 수사 내용을 검토한 뒤 국가 기밀 등을 이유로 공개를 제한하는 행정특권을 발동할 수 있게 돼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권한을 행사할지도 '변수'가 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6일 트위터에서 "나는 권리가 있지만, 아직 뮐러 보고서를 읽지 않았다"며 "오직 결론만 안다. 공모는 없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박종구의 中國 인물 이야기



〈초당대총장〉

<176> 영호도

영호도(令狐綯, 795-879)는 섬서성 경조 화원 사람으로 자는 자직(子直)이다. 당 선종때 재상을 지냈다. 태위 영호초의 차남으로 830년 진사에 급제했다. 이후 홍문관교서랑, 좌승을 거쳐다. 부친 사후 좌보필, 호부 원외랑, 우사랑중을 역임하였다. 845년 저장성 호주절도사가 되었다. 846년 무종이 즉자 황숙 이침이 선종으로 즉위했다. 841년 어느날 재상 백민중과 부친 현종의 장례를 회상했다. 장례를 치를 때 장대비가 쏟아져 조정대신들이 비를 피하여 사망으로 흩어졌는데 당시 산릉사였던 자가 비를 맞으면 서도 쫓겨 않고 있었다며 그가 누구였는지를 하문했다. 영호초라는 답을 들은 황제는 아들이 누구인지를 물었다. 재상은 장남 영호서는 수주자사인데

입궐해 황제에게 직접 보고토록 하였다. 수주에서 일하던 관리가 인접 지역에 부임하게 되자 그는 직접 부임지로 가라는 명을 내렸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재상에게 하문하자 "새로 부임하는 곳이 지적이라 바로 부임하도록 시했습니다"고 답하였다. 황제는 "이미 이루어진 결정을 어찌 무시할 수 있겠는가. 짐이 그동안 재상을 너무 풀어준 것 같소"라고 말했다. 깜짝 놀라 웃이 맘으로 흠뻑 젖었다. "연영전의 그 일을 생각할 때마다 식은땀이 난다"고 후일 회상하곤 했다.

선종은 환관 집단을 일거에 제거할 것을 모의하였다. 그는 은밀히 주문을 올려 말하기를 "다만 죄를 짓게 되면 내 버려두지 말고 결원이 생겨도 보충하지 않으면 자연히 점차 줄어들어 없어지게 이릅니다." 환관이 주문을 몰래 보게 되어 환관과 조정대신 관계가 더

황제 금련축 하사 깊은 신임

건강이 좋지 않고 차남 영호도는 호주 자사를 거쳤는데 큰 인물이 될 만하다고 답했다. 이를 계기로 영호도는 고공랑중·지제고로 승진해 황제의 측근으로 부상했다.

영호도가 입궐해 감사의 말을 하자 황제는 현종 연간에 있었던 옛날 일을 물었다. 영호도가 조목조목 아주 소상히 답하니 황제는 크게 기뻐하며 중용할 결심을 하였다. 848년 2월 한림학사로 삼았다. 태종이 편찬한 금경(金經)을 주고 소리내어 읽도록 하였다. "지극한 난세라 못한 사람에게 일을 맡기지 않은 적이 없었고 지극한 치세라 충성스럽고 어진 사람에게 일을 맡기지 않은 적이 없었다"고 읽자 중지시키며 말하였다. "무릇 태평 시대가 되기를 원하면 마땅히 이 말을 으뜸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선종 대종 4년(850) 재상에 올랐다. 859년 선종이 붕어할 때까지 10년간 그 자리에 있었다. 재상에 임명되기 직전 황제와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었다. 한림원으로 돌아가는 어두운 길을 밝히도록 그에게 금련축(金蓮燭)을 하사해 깊은 신임을 보여주었다. 신중하고 꼼꼼하게 일을 처리해 선종의 신임을 잃지 않았다. 그러나 일순 방심해 황제의 노여움을 사기도 했다. 선종은 주의 자사는 재임 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속 나빠졌다. 사인 유태가 늘 영호도의 허물을 상소했다. 아들 영호호가 뇌물을 받았다. 시험에 부정을 저질렀다는 등의 혐담이었다. 이에 심복을 유태의 집 서리로 파견해 유태가 상인에게 뇌물 받은 일을 들춰내 지방으로 좌천시켰다.

859년 선종이 단약 후유증으로 붕어하자 장례를 주관하는 섭중대가 되었다. 장기 집권으로 많은 적이 생겼고 아들 영호호가 뇌물과 권력 남용으로 비난의 표적이 되었다. 하중절도사로 좌천되었다. 이후 선무, 회남절도사 등을 역임하였다. 863년 아들 영호호가 좌승유로 기용되었는데 기거량 장운이 상소해 "영호호는 아버지가 정사를 잡았을 때 사람들이 '백의재상'이라고 불렀습니다." 결국 첨사부사직으로 옮겨졌다. 868년 방훈이 난을 일으켜 강소성 서주를 침략하였다. 서주남면초토사로 임명되었으나 여러 차례 싸움에 패하였다. 나약하고 겁이 많아 적을 회유하는데 급급했다. 회중때 봉상절도사로 임명되었고 조공에 봉해졌다. 879년 세상을 떠났다.

'구당서'에는 성격이 소심하고 느리다고 기록되어 있다. 삼가고 조심스러운 덕에 10년간 재상직을 지킬 수 있었다. 영호호, 영호정, 영호환 등 여러 아들이 있었는데 모두 범용한 인물이었다.



리비아 트리폴리서 철수하는 미 함정 리비아 동부 군벌 리비아국민군(LNA)과 리비아 통합정부군과의 무력충돌이 격화하자 7일(현지시간) 리비아에 주둔하던 미군의 수륙양용 호버크래프트(공기부양정)가 트리폴리 서부 잔주르를 떠나고 있다. 미군은 이날 안전문제를 우려해 자국 병력을 리비아에서 일시 철수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美, 대만에 신형 전차 판매 100여대... 미중 갈등 증폭

최근 중국과 대만 전투기가 대만해협에서 대치하는 등 양안 간에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이 대만에 100여대의 최신 전차를 판매하기로 해 중국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대만 정부는 또 미중 무역협상과 연계돼 보류설이 나돌던 F-16V 전투기 구매도 예정대로 추진되고 있다고 공개하고 나서면서 미국-대만과 중국간의 갈등은 한층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자유시보와 연합보 등 대만 언론은 최근 대만 입법원(의회)에 제출된 국방부 문건을 인용, 대만 정부가 미국산 M1A2 에이브람스 전차 108대를 구매하기로 하고 미국측과 조율 등 관련 절차를 마쳤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이달 말 M1A2의 대만 판매계획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이들 매체는 전했다.

대만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 들어올 신형 전차는 M1A2 시리즈 중의 M1A2X로 M1A2 SEPv3전차를 소폭 개량한 수출형 모델이라고 밝혔다. 이들 전차는 대만 북부지역의 2개 기갑여단에 배치될 계획이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M1A2X 전차는 길이 9.83m, 폭 3.66m, 높이 3.08m, 무게 63t으로 현행 대만군이 운용 중인 M60A3 전차의 중량 52t과 대만 도로법에 규정된 최대 견인 중량 43t을 모두 초과해 안전과 법규상 일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브렉시트 향방 내일 결정된다

두번째 EU 특별정상회의 '노딜'·'장기 연기' 판가름

특별정상회의 직전 영국과 EU는 브렉시트 전환(이행)기간, 분담금 정산, 상대국 국민의 거주권리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585쪽 분량의 EU 탈퇴협정에 합의한 데 이어, 자유무역지대 구축 등 미래관계 협상의 골자를 담은 26쪽 분량의 '미래관계 정치선언'에도 합의했다.

이로부터 4개월이 지났지만 브렉시트 합의안은 여전히 영국 하원의 벽에 가로막혀 비준 절차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당초 예정됐던 브렉시트 합의안 추진을 위한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EU는 영국 의회가 브렉시트 합의안 중

EU 탈퇴협정을 아직 통과시키지 않은 만큼 오는 12일 이전에 '노딜' 브렉시트나 5월 유럽의회 선거 참여를 전제로 한 브렉시트 장기 연기 중 하나를 선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브렉시트 합의안의 의회 통과를 위해 제1야당인 노동당의 제러미 코빈 대표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양측은 EU 관세동맹 내지 노르웨이 모델 등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코빈 대표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메이 총리는 브렉시트 대안을 놓고 하원에서 일련의 표결을 통해 과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연합뉴스



SUNLAKE VILL 전원마을 조성단지

세울터컨설팅사사무소(주)

나주, 다도댐 부근, 임야

- 나주시 다도면 판촌리 산191-17 한전(KPS) 연수원 인근
 - 임야 1423평, 보전관리지역
 - 혁신도시 15분, 남평에서 10분
 - 전원주택, 펜션, 별장등 최고장소
 - 호수를 품은 최고의 전망
 - 토목공사 완료
 - 150평~200평씩 분할 매매 가능
 - 매매-14억2,300만원(조정가)
- 문의. 010-3605-5000